

## 김택영의 문학에 나타난 디아스포라와 정체성

곽미선\*

<차례>

1. 들어가는 말
2. 김택영의 정체성 형성 - 왜 디아스포라인가?
3. 김택영의 문학에 나타난 디아스포라 의식
  - 3.1. 流民정서의 표출과 歸鄕의지의 고취
  - 3.2. 고통의 실체와 민족상실감의 극복
  - 3.3. 망명지에서의 현실대응과 문화적 정체성 찾기
4. 나오는 말 - 디아스포라 문학의 진정한 정체성을 위하여

### <국문초록>

滄江 金澤榮(1850~1927)은 구한말을 대표하는 문인 가운데 한사람으로서 한국 근대사상 연구에서 중요한 인물로 부각된다. 이 논문은 창강의 문학에 나타난 디아스포라 정체성을 살펴보고자 시도되었다. 창강의 디아스포라한 의식을 고찰하기 위하여 유민정서의 표출과 귀향의지의 고취, 고통의 실체와 민족상실감의 극복, 망명지에서의 현실대응과 문화적 정체성 찾기 등으로 나누어 조명하였다.

창강은 남통이라는 망명지에서 流民생활의 외로움을 느끼면서 조국의 역사와 문화를 부여잡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을 극복하고자 해외로 망명갔던 여타의 문인들과 마찬가지로 歸鄕의지를 고취하였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 고통과 상실감을 느꼈다. 민족의 상실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창강은 중국으로의 歸化를 신청하였는데 자신의 편안함을 추구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중국과 조선을 기자의 후손으로 인식하면서 민족을 위하여 새로운 출로를 모색하고자 이 길을 선택하였던 것이다. 망명지에서 문화적인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국의 역사서와 조선문인들의 문집들을 편찬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중국

\* 연세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지식인들의 도움으로 문집을 널리 간행할 수 있었는데, 창강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성과는 조선의 문화를 중국에 널리 알리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디아스포라는 창강에게 많은 상실과 아픔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창강은 디아스포라를 경험하면서 한말 지식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다져갈 수 있었고, 망명지에서 해야 할 일들에 전념하면서 조국을 위하여 유익한 일들을 해낼 수 있었다.

**주제어** 김택영, 문학, 망명, 디아스포라, 민족상실감, 정체성.

## 1. 들어가는 말

창강 김택영(1850~1927)은 구한말시기 해외로 망명한 지식인가운데 한사람으로 우리 문학사에서 주목해야 할 인물이다. 조선의 망국에 즈음하여 亡國奴가 되기를 거부하고 일제의 압정을 피하여 중국으로 망명한 창강은 망명지에서 愛國啓蒙運動을 활발하게 펼치면서 救國활동에 적극적으로 투신하였다. 중국으로 망명한 후 창강은 중국인들의 도움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으나 떠나온 조국에 대한 思念 때문에 마음의 정착처를 찾지 못하고 디아스포라한 삶을 살아갔다.

디아스포라 문학은 많은 부분 간도 땅을 떠도는 유민들의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간도는 수많은 문인들이 망명하여 여러 형태로 저항운동을 전개했던 곳으로 우리 문학사의 중요한 공간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상해를 비롯한 남방 지역도 독립운동의 진원지로서 디아스포라 연구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곳이다. 朴殷植은 上海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였고, 창강은 南通으로 망명하여 삶을 마감할 때까지 중국 지식인들과 활발한 교류를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본고에서는 창강의 문학에 나타난 디아스포라 정체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학계에서 창강의 사상과 문학에 대하여 폭넓은 연구업적이 축적되었지만 디아스포라의 개념을 도입하여 집중적으로 다룬 논문은 없다. 창강의 면모를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디아스포라의 시각에서 그의 문학을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고는 선행연구에서 간과되어온 디아스포라의 시각으로 창강의 망명 생활을 구명해 보고자 한다. 현전하는 『韶護堂集』에는 창강이 망명시기에 지은 詩나 文이 상당수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창강의 디아스포라 의식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이러한 자료는 창강이 중국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검토할 수 있는 유효한 자료이기도 하다. ‘디아스포라’라는 잣대로 창강의 망명시기 문학을 접근하는 방법은 근대계몽기 지식인의 행적을 연구하는 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한말 일제하 우리 민족을 둘러싼 제반 상황 및 동아시아 근대문학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2. 김택영의 정체성 형성 - 왜 디아스포라인가?

창강의 문학을 왜 디아스포라로 접근할 수 있을까? 이에 답하기 위하여 디아스포라의 개념 및 특성을 살펴본 후, 창강이 중국으로 망명하게 된 원인 및 그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친 요소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디아스포라(Diaspora)는 民族分散 또는 民族離散을 지칭한다. 최근에 들어와 디아스포라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디아스포라는 유대인의 경험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의 국제이주, 망명, 정체성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샤프란(Safran)은 디아스포라를 “국외로 추방된 소수 집단 공동체(Espatriate Minority Communities)”라고 정의하면서 구

체적으로 여섯 가지의 특성<sup>1)</sup>을 내세웠는가 하면, 무딴베와 앵글(Mudimbe and Engle)은 디아스포라를 “정치적 이유로 거주국 사회에 동화될 수도 없고 동화하려고 하지 않으며 그렇다고 그들 자신이 고안해낸 이상화된 기원지로 귀환할 수 없는 사람들의 공동체”<sup>2)</sup>라고 제시하였다. 최인범은 기존의 디아스포라 개념들을 정리하면서 디아스포라의 전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공통적인 속성<sup>3)</sup>들을 제시하여 디아스포라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었다.

오늘날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세계 각국에 널리 사는 다양한 이산의 백성을 좀 더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탈식민주의 이론이 나타나면서 디아스포라는 탈식민주의 비평 중에서의 중요한 부분인 문화신분담론에서의 중요한 이론적 범주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는 슈트아트·홀의 『문화신분과 디아스포라』에 잘 드러난다.

- 
- 1) 윤인진, 『코리안 디아스포라』,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5년, p.5~6. 샤프란은 디아스포라의 특성으로 “(1) 특정한 기원지로부터 외국의 주변적인 장소로의 이동, (2) 모국에 대한 집합적인 기억, (3) 거주국 사회에서 수용될 수 있다는 희망의 포기과 그로 인한 거주국 사회에서의 소외와 격리, (4) 조상의 모국을 후손들이 결국 회귀할 진정하고 이상적인 땅으로 보는 견해, (5) 모국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헌신, (6) 모국과의 지속적인 관계유지”를 들고 있다.
  - 2) Mudimbe, V. Y. & Sabine Engle. 1999. "Introduction." *Diaspora and Immigration, The South Atlantic Quarterly special issue* 98(1/2) : 1~8
  - 3) Choi, Inbom, 2003. "Korean Diaspora in the Making : Its Current Status and Impact on the Korean Economy." pp.9~27 in C. Fred Bergsten and Inbom Choi (eds.). *The Korean Diaspora in the World Economy*. Washington, DC :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한 기원지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두 개 이상의 외국으로 분산한 것, 정치적 경제적 기타 압박요인에 의해 비자발적이고 강제적으로 모국을 떠난 것, 고유한 민족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것,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동족에 대한 애착과 연대감을 갖고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기 위한 초국적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 모국과의 유대를 지키려고 하는 것.”

“디아스포라는 우리와 같은 분산된 민족공동체, 애오라지 모든 대가를 지불하면서라도 심지어는 기타 민족을 큰 바다에로 내몰아내면서라도 그 어떤 신성한 고향에 되돌아가야만 비로소 신분을 획득할 수 있는 특정한 민족공동체만을 가리키는 것만은 아니다. 이것은 진부하고 제국주의적이고 패권주의적인 종족형식이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낙후한 디아스포라적인 관념에 의해 팔레스타인인들이 당하고 있는 액운 그리고 서방이 이러한 관념과 동모하고 있음을 보았다. 내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디아스포라적 경험은 결코 본성이나 순결도에 의해 정의를 내린 것은 아니며 필요한 다양성과 이질성에 대한 인정으로부터 정의를 내린 것이다. 차이를 인정하고 차이를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지 결코 차이를 불구하고 생존을 꾀하는 신분관념은 아니며 혼종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정의를 내린 것이다. 디아스포라의 신분은 개조를 거치거나 그 차이성으로 말미암아 부단히 생산되고 재생산됨으로써 자신의 신분을 갱신하게 되는 것이다.”<sup>4)</sup>

슈트아트·홀은 디아스포라에 대하여 새롭게 정의를 하였다. 민족공동체의 범주에서 벗어나 다양성과 이질성을 인정하면서 문화의 혼종성 내지는 신분의 생산성과 재생산성이 추가된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사회학 분야에서 제기된 디아스포라의 개념은 문학연구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를테면 비자발적으로 모국을 떠나 타국에 정착한 문인들은 자신의 문학창작에서 디아스포라 의식을 표출하였다. 디아스포라를 체험한 문인들은 타의에 의해 조국과 가족공동체를 떠나 異國에서 작품을 창작하면서 부단히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였고 고유한 민족문화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였으며 소외된 생활을 극복하면서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작품 속에 투영시켰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창강의 문학을 디아스포라로 접근할 수 있겠다.

4) 王先霈·王又平 主編, 『文學理論批評術語匯釋』, 高等教育出版社, 2006년, p.748.

본고에서는 외적인 요인에 의해 조국과 가족공동체를 떠나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로서의 디아스포라라는 개념을 사용함과 동시에, 슈트아트·홀이 내린 문화의 혼종성 내지 신분의 생산성과 재생산성 차원에서의 디아스포라의 개념도 받아들여려고 한다.

디아스포라 연구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정체성에 대한 문제이다. 정체성은 아이덴티티(identity)라 지칭하기도 하는데 한 개체거나 집단이 자기의 문화상에서의 신분을 추적하거나 확인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창강은 과도기적 혼란시기를 경험하면서 정체성이 위협을 받고 있을 때에 자신과 가족과 나아가 민족을 위해 그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하였다. 결국 창강은 1905년 일제의 망국노가 되지 않기 위하여<sup>5)</sup>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중국 망명이었다. 창강은 당시 해외로 망명은 지식인을 대표할 수 있을 정도로 지식인의 다양한 의식을 잘 간주하였다. 창강의 중국행에 대하여 망명이나 귀화이나를 두고 의논이 분분하다. 하지만 창강은 조국이 을사보호조약으로 인하여 존망의 위기 직전에 나라를 떠났기에 망명임에 틀림 없다. 그는 자신의 안위를 추구하기 위하여 중국행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문장으로 救國하기 위하여 비자발적으로 조국을 떠났던 것이다. 이러한 의지는 창강이 1905년 망명을 앞두고 장건에게 보낸 편지<sup>6)</sup>와 1910년 망명생활을 하면서 梅泉 黃玟에게 보낸 시<sup>7)</sup>에서 구체화되어 드러난다. 창

5) 황현, 『聞金滄江去國作』, 『매천전집』 권1, 1905년, p.303. “春暮得滄江正月出書云新年來 頗有萬里之想 倘借天靈 得終老於蘇浙之間 則不猶愈於作島兒之奴耶”

6) 김택영, 與張季直書, 『김택영전집』 1책, 아세아문화사, 1978년, p.416. “至今未嘗暫忘於中 此生此世 夫復何幸 亦復何求 將朝暮投効 航海而南 從吾子於山椒水曲之間 以與吾子對論文史 忽焉忘世 而彼此無復怨與悲 以而偕至沒齒 此其甚願也 惟吾子諒教之”

강은 망명지에서 다양한 학술활동(편집출판활동)과 시문창작활동을 통하여 문장가로서의 정체성을 수호하였다. 정체성에 대한 수호를 통하여 확실히 토로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을 것이다. 이 메시지는 바로 국문이 아닌 한문으로 다양한 시문을 창작하여 독특한 정신과 내면을 표출하여 디아스포라의 삶을 반영하고자 한 것이었다.

창강의 디아스포라는 창강만의 고유한 특수성을 가진다. 이는 창강의 디아스포라가 만주로 망명한 문인들과는 다른 정치적 상황과 맥락에 의해 유발된 독특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20세기 초반 대부분 문인들이 만주를 망명지로 선택하여 활동무대로 삼았다면 창강은 남통이라는 근대도시를 선택하여 이곳에서 자리 잡게 된다. 창강이 남통에서 안착할 수 있었던 이유로 장건과의 교유<sup>8)</sup>를 들 수 있다. 장건은 1883년 임오군란 때 오장경의 종사관으로 서울에 머문 적이 있었는데 그때 金允植의 소개로 창강을 만난 후 두터운 교분을 맺었다.<sup>9)</sup> 장건의 도움으로 남통에 정착한 창강은 翰墨林印書局에서 편집사업을 맡아보면서 문장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었다. 창강이 조국을 떠나 남통에서 편집출판사업을 하면서 타국의 중심에 효과적으로 편입한 것 같지만, 그는 어디에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고독한 삶을 살아갔다. 즉 그는 어딘가에 귀착할 곳을 찾지 못한 채 홀로 유민으로 살았다고 할 수 있다. 유민으로 살아가면서 창강은 자신의 한시창작에 끊임없이 歸鄉의지를 표출하였고,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7) 앞의 책, 寄黃梅泉, p.288. “愧無身手關時運 只有文章報國恩” 1910년 작.

8)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李建芳, 『墓碣銘』, 『김택영전집』6책, p.706~707. “季直名譽中國通州人也 先是壬午兵變起 清師吳長慶稱來援引兵入都 而季直從焉 因遇金君參判允植所 談詩亟推之 遂深相交結”

9) 앞의 책, 李箕紹, 遺事, p.693. “壬午京師有軍亂 清遣將吳長慶來援 張季直嘗與其兄叔儼督亦從之留漢都 因金雲養允植見先生詩 以爲是過海以來所初見者 介雲養而請見謂曰 東來無所得 得公詩爲寶 先生乃以黑風吹海等長篇贈之 張亦以紙墨貺之以致殷勤焉”

유지하기 위하여 『연암집』·『매천집』·『紫霞詩集』·『韓國歷代小史』·『韓史繫』등을 비롯한 수많은 책을 간행하여 조선 문헌의 계승에 힘을 쏟았다.

창강은 전반 생애에 걸쳐 비주류의 삶을 살았었다. 그는 조선에 있을 때 개성출신이라는 이유 때문에 과거시험에도 단번에 등용되지 못하고 여러 번 좌절을 경험하면서 소외된 삶을 살았고, 중국으로 망명은 후에도 망명객의 신분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외로움을 겪어야 하였다. 앞으로 창강을 비롯한 망명객에 대한 행적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구자들의 시선을 바꾸어야 한다. 유교적인 절의를 지키기 위해 중국으로 망명했다고 판단하는 시각으로부터 벗어나 디아스포라의 속성을 도입하여 그의 망명활동을 살펴본다면 보다 생산적인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디아스포라는 창강에게 많은 상실과 아픔을 안겨주었지만 창강은 디아스포라를 경험하면서 한말 지식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다져갈 수 있었고 망명지에서 그가 해야 할 일들에 전념할 수 있었다.

### 3. 김택영의 문학에 나타난 디아스포라 의식

창강은 중국으로 망명한 후 민족의 이념을 제대로 내세울 수 없는 처지에서 두 개의 대상으로 분열된 현실공간을 디아스포라 의식으로 돌파하였다. 그리고 그 돌파가 가져다준 결론은 삶의 운명적 외로움이다. 창강은 이 외로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歸鄉의지를 고취하였고, 고통의 실체로부터 벗어나고 민족상실감을 극복하기 위하여 중국으로의 귀화를 선택하였다. 창강이 중국으로 歸化했다고 하여 그의 민족정체성이 약화된 것은 아니다. 그는 중국이 조선과 마찬가지로 기자의 후손임을 강조하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벗어나 중국무대에서 보다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위하여 歸化를 신청하였을 뿐이다. 중국으로 귀화한 후에도 창강은 늘 자신을 遺民이라 부르면서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다져나갔다.

창강은 한문학의 마지막 세대로서 한문학 유산정리와 시문창작을 통하여 민족 정체성을 고취하면서 디아스포라의 애환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식민지 시대에 국문으로 문학작품을 창작하면서 민족성을 고취했던 여타 문인들과 변별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 3.1. 流民정서의 표출과 歸鄉의지의 고취

창강은 遺民이면서도 동시에 流民이었다. 나라를 잃었기에 遺民이고 고향을 떠났기에 流民이다. 망국적 상황으로부터 창강은 정치 없이 떠돌아다니는 流民으로 전락되었다. 그의 디아스포라한 삶을 파악하기 위하여 遺民보다 流民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창강의 망명시기 문학 가운데 주목할만 한 것은 바로 流民정서의 표출이다. 이역땅에서의 流民생활은 창강으로 하여금 이중 정체성을 지니게 하였다. 이 이중 정체성은 바로 망명은 존재로서의 정체성과 돌아가야 할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말한다. 창강에게 있어서 이중 정체성은 스스로 지향했던 바가 아니라 경계인이자 이방인으로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현실로부터 생겨나게 되었다. 이중 정체성으로서의 자의식은 창강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온전한 자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조국과 고향을 염원하게 만든다.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의지가 작품에 빈번히 등장한다는 것은 창강이 그만큼 삶의 근거지로부터 유리되어 流民의 생활을 겪었음을 시사해준다.

...(상략)...

兄今已回甲 형은 지금 이미 회갑이고

弟亦五十九 동생 또한 오십구세라네.  
 前途兩無幾 앞날은 둘 다 얼마 남지 않아  
 墳墓宜共守 무덤은 마땅히 함께 지켜야 하리라.  
 胡然各萬里 어찌하여 각각 만리에서  
 四見霜打柳 네 번이나 서리친 버들을 보았는가.  
 此事有鬼神 이 일에는 귀신이 있기에  
 置之勿開口 버려두고 입을 열지 말아야지.<sup>10)</sup>  
 …(하략)…

이 시는 창강이 1908년에 종형의 회갑을 맞이하여 보낸 작품이다. 이 작품은 창강의 망명시기의 한시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유민정서의 특질을 집약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형과 동생의 앞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조상의 무덤을 지키기 위해서 창강은 속히 조국으로 돌아가야 할 상황이다. 하지만 이 돌아가야 할 상황은 현실의 벽에 의하여 당분간 실현될 수 없었다. 현실의 벽은 다름아닌 일제의 침탈로 인한 망국적 상황이다. 망국으로 인하여 형제간에 생이별을 하게 되었고 정치없는 삶을 살아갈 수 밖에 없었다. 정치없다는 것은 한 곳에 안주하지 못하고 나그네 생활을 한다는 뜻이다. “이역만리에서 네 번이나 서리친 버들을 보았다”는 대목은 정치 없는 流民생활에 대한 심회가 더욱 짙게 나타나 있다.

…(상략)…  
 惟君性好我 그대 성품 나와 맞으니  
 一似三生緣 한생에 삼생연분이로세.  
 山河雖破壞 강산은 비록 파괴되었으나  
 金蘭尙完全 천분 깊은 건 그대로이거니.

10) 김택영, 『遙壽本生從兄主事君回甲』, 『김택영전집』1책, p.267. 1908년 작.

慰我漂泊恨 떠도는 나의 한스러움을 위로해주려고  
 速客開樽筵 속객 위해 술자리 베풀었네.  
 懷繁語反澁 회포는 많으나 말은 도리어 딱딱하고  
 權極悲仍纏 지극히 기쁘지만 슬픔이 여전히 얽혀있네.<sup>11)</sup>  
 …(하략)…

박무원에게 보내준 이 시에서도 정치없는 流民생활에 대한 탄식이 애절하게 그려져 있다. 창강은 박무원의 문장력을 “鄭虔三絶”에 비견하면서 높이 평가하였다. 이러한 언급으로부터 박무원이 詩書畫에 정통한 인물<sup>12)</sup>이었음을 알 수 있다. 박무원은 망명지에서 창강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강산이 파괴되어 유랑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가까이에서 깊은 우정을 나누면서 밀접하게 교류하였다. 이는 박무원이 떠도는 창강의 한스러움을 위로해주려고 술자리를 베푸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역땅에서 오랜만에 만났기에 서로 간에 회포가 많을 테지만 流民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생활에 지쳐 슬픔을 물리칠 수 없었다.

망명지에서 정치없는 나그네 생활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그림자처럼 창강을 따라다닌다. 창강은 망명생활을 하면서 고향이 너무나 그리웠다. 그래서 고향의 가족을 생각하며 시를 짓기도 하고 친구들의 부탁으로 序나 記文을 짓기도 하였다. 記文을 통하여 몰려오는 수심과 향수를 달래기도 하였다. 창강이 고향의 白雲亭을 그리면서 지은 「白雲亭記」의 일부분을 인용해본다.

갑인년 봄에 개성의 여러 군자들이 한 사를 만들고 백운정을 지어서 寢處

11) 앞의 책, 寄朴茂原, p.283. 1909년 작.

12) 앞의 책, 朴茂原, p.306. “君德如白玉 衆美咸具焉 … 持螯一石斝 染翰三絶處” 1912년 작.

의 장소로 삼았다. 후에 구룡담에 한 누각을 짓고 홍엽이라고 이름하였으며 경치를 구경하기 위해서였다. 박석당 자산이 그 사에 참여하였는데 나에게 편지를 보내어 알려주었다. 내가 바야흐로 낭산의 꼭대기에 올라서 북으로는 회수를 바라보고 남으로는 장강을 굽어보았다. 단풍과 꾀나무에 기대어 풍월을 부여잡고 스스로 평생동안 장유하고자 한 뜻을 이루었다. 비록 어찌 우리 땅만 같으리오마는 바람을 향하여 한번 탄식하며 이를 위하여 기를 쓰노라.<sup>13)</sup>

1914년 朴石堂이 보내준 편지를 받고 지은 記文이다. 박석당은 중국으로 망명하지 않았지만 창강의 글을 즐겨 읽으면서 바다를 사이 두고 창강과 서신으로 소식을 주고받았던 것 같다. 박석당의 死後 창강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만사<sup>14)</sup>를 지었는데 이로부터 두 사람 사이의 교유의 깊이를 헤아릴 수 있다.

창강은 개성의 여러 군자들이 좋은 경치를 구경하기 위해 白雲亭과 紅葉樓를 지었다는 소식을 친구로부터 전해 듣고 이역만리에 떨어져 流民 생활을 하는 몸이라 동참할 수 없는 아쉬움을 암묵적으로 드러낸다. 이 아쉬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낭산 정상에 올라 장강과 회수를 바라보며 고향을 그리면서 회포를 달랬다. 직접 고향으로 갈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바람을 향하여 탄식하며 流民정서를 표출하였다. 같은 해 창강은 또 고향의 풍경을 회상하며 「遙題開城紅葉樓」<sup>15)</sup>를 지어 고국을 떠나 남통

13) 앞의 책, 白雲亭記, p.620. “甲寅春 開城諸君子就結一社 建白雲亭 以爲寢處之所 然後構一樓于九龍潭上 名以紅葉 以攬景槩 朴石堂子山與於其社 馳書以告 夫余方陟狼山之巔 北顧淮水 南俯長江 蔭楓橋而挹風月 自以酬平生壯遊之夙志矣 雖然豈若吾之土哉 向風一歎而爲之記” 1914년 작.

14) 앞의 책, 「朴石堂挽」, p.360. “與君今日鬼人分 誰復琅琅讀我文 擬把續刊僉父賦 紙錢同向海天焚” 1918년 작.

15) 앞의 책, 「遙題開城紅葉樓」, p.325. “故園風景總依依 最憶城東新石扉 祇樹何年

에 정착한 지 10년에 가까운 시점에서조차 고향의 풍경은 늘 눈앞에 어른거린다고 하였다. 고향에 돌아갈 기약이 없는 상황에 상상속에서만나마 고향의 모습을 그려보며 流民생활의 외로움을 토로하였다.

창강은 망명지에서 流民생활로 인한 외로운 상황을 감내하면서 언젠가는 꼭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결심하였다. 상실된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동경 때문에 조국을 언젠가는 꼭 돌아가야 할 삶의 정착처로 간주하면서 歸鄉의지를 반복적으로 드러내었다.

禪樓高凭彩雲間    질간은 높이 채색 구름 사이에 기대 있고  
花木香中梵誦閑    꽃나무 향기 속에 계송을 암송하는 소리 한가롭구나.  
萬里怒濤江入海    만리에 성난 파도는 강에서 바다로 들어가고  
一聲長嘯月橫山    한번 긴 휘파람 소리에 하늘이 산에 가로 걸려 있구나.  
祖生擊楫心能壯    조생처럼 노를 두드리는 마음은 능히 장하지만  
魯子揮戈事正艱    로마처럼 창을 휘두르는 일은 정말 어렵도다.  
何日見君功業就    어느 날 그대의 공업이 이루어져  
春風歌舞返鄉關    봄바람에 노래하고 춤추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겠는가.<sup>16)</sup>

이 시는 1910년 윤현태가 안창호·이종호와 함께 방문하러 왔을 때 창강이 그들에게 지어준 작품이다. 창강은 이들과 함께 낭산사에서 노닐고 하루 밤을 같이 묵으면서 이역땅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헌신하는 행위를 장하다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일제의 침탈로 인하여 그들의 투쟁사

---

聞梵唄 蘭亭今日集冠衣 澄潭如月沙堪數 紅葉漫山徑欲非 銅雀黃塵嗟溢目 諸君且飲不須歸” 1914년 작.

16) 앞의 책, 尹顯泰同安昌浩李鍾浩見訪 遂與遊狼山寺一宿 尹與弟顯振寓上海, p.292. 1910년 작.

업이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일본에 빼앗긴 현실은 “怒濤”와 “月橫山” 등 매개물을 통하여 애절하게 드러난다. 시의 마지막 구에서는 독립투사들이 암울한 현실상황을 극복하고 功業을 꼭 이루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였다. 창강은 문장가인 자신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혁명의 제1선에서 투쟁하는 투사들에게 기탁하여 歸郷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였던 것이다.

聞風餘十稔 소문 들은 지 십여년에  
接札若千金 한번 받은 편지 천금 같네.  
不有撐天節 하늘을 버티는 절개가 없다면  
那懷愛物心 어찌 물건 사랑하는 마음 품을 수 있을까.  
漢墟春草進 한양에는 봄 풀이 자랐고  
華席海雲深 화석에 바다 구름이 깊네.  
孰使南冠者 누가 남관자로 하여금  
殘齡返故林 늙은 나이에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리오.<sup>17)</sup>

72세 되던 해 창강이 신규식의 양력 설날 문안에 사례하면서 지은 시인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의지를 진솔하게 표명하고 있다. 申圭植은 중국혁명의 영향을 받고 1911년 중국으로 이주해온 뒤 상해에서 중국 자산계급 민주주의혁명의 정치무대에 진출하여 독립운동의 선구자로 활약한 인물이다. 창강은 하늘을 버티는 절개로 모든 것을 사랑하는 신규식의 행위를 높이 칭송하였다. 서울은 폐허가 되어 봄풀이 자랐지만 누구하나 구제해줄 사람이 없는 안타까운 심경을 신규식에게 토로하였다. 창강이 이렇게 안타까움을 토로한 내면에는 아마도 당시 지식인들이 해외로 떠나

17) 앞의 책, 謝申總長圭植西曆新年之間, p.390. 1921년 작.

가서 나라를 지킬 수 없었던 현실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시의 마지막 구에서 창강은 자신을 南冠에 비유하여 詩想을 전개하였다. 南冠은 남방 楚 나라 사람의 관으로, 춘추 시대 초나라 鍾儀가 쫓 나라에 포로로 갇혀 있으면서도 항상 고국을 그리워하여 초나라의 관을 썼던 고사에서 온 말이다. 신규식을 비롯한 독립운동의 선구자들이 조국을 광복시켜 늙은 나이에라도 歸鄉하고자 하는 염원을 드러내었다.

이상 창강의 流民정서와 歸鄉의지가 드러난 작품을 중심으로 그의 디아스포라 의식을 살펴보았다. 창강은 일체의 침략에 의해 삶의 터전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중국으로 망명가서 디아스포라한 삶을 경험하게 되었다. 생활의 안식처를 잃어버린 창강은 망명지에서 流民생활의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고 이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歸鄉의지를 고취하였다. 창강은 망명지에서 안창호, 신규식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이들에게 조국광복의 소망을 이루어줄 것을 간곡히 부탁기도 하였다. 자신이 실천할 수 없는 일들을 이들에게 기탁하여 실현하고자 한 점 역시 창강의 독특한 면모라 할만하다. 즉 문장가였던 창강은 文章報國의식을 지니고 민족을 위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 양심적 지식인으로서의 사명을 완수하였다.

### 3.2. 고통의 실체와 민족상실감의 극복

창강은 중국으로 망명한 후 주변인으로 살아가면서 소외감을 느끼며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다. 그는 스스로를 늘 죄인이라고 생각하였다. 창강이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게 된 까닭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원인이 있다. 그중 하나는 집에서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고 나라에서 임금에게 충성하지 못하면서 말년에 나라를 잃어 정치 없이 떠

돌아다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에서 張謇 형제에게 근심만 남겨주게 되었기 때문이다.<sup>18)</sup> 장건 형제는 창강이 중국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몰심양면으로 후원해준 知己이다. 知己에게 늘 폐만 끼치게 된 창강은 자신의 처지를 자탄하면서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렸던 것 같다. 이런 고통으로부터 해탈하기 위하여 창강은 망명지에서 문장에 힘을 다할 결의를 다진다.<sup>19)</sup>

...(상략)...

君卦靜而貞 그대의 괘는 고요하고도 곧아  
 至今守舊貫 지금까지 낡은 관습 지켰다오.  
 我卦動而悔 나의 괘는 움직이고도 다하여  
 飄至長江岸 장강 안까지 날아왔다오.  
 君有篤厚風 그대는 독후한 풍이 있었는데  
 迢迢接西漢 아득아득 서한에까지 접하였네.  
 持此往亨衢 이를 지니고 벼슬길에 나아간다면  
 可至玉皇案 옥황상제 책상 앞에 이를 수 있을 것이네.  
 冰啣已嗟卑 청현한 관직을 이미 슬퍼하노니  
 桑劫仍邁難 상전벽해가 되어도 여전히 난을 당하였도다.  
 此理將謂何 이 이치를 장차 무어라 할까  
 因風寄長歎 바람 따라 긴 탄식에 부치노라.<sup>20)</sup>

18) 김택영, 自誌, 『김택영전집』2책, p.463~464. “自考其平生 在家不能孝於親 在朝不能忠於君 而未又爲失土流離之人 以遭二張大夫無窮之憂 余有罪余有罪 尙何言哉 夫既有罪如彼 而又使天下之人爲過情之忖度 卽罪將尤大矣” 1920년 작.

19) 앞의 책, 自誌, p.464. “其行也不清不濁 其文也不高不卑 竭一生之力以爲文 而其終也止於斯 噫其悲” 1920년 작.

20) 김택영, 『孫主簿宜卿』, 『김택영전집』1책, p.3. 1912년 작.

1912년 손의경에게 지어준 이 시에는 창강이 망명지에서 겪었던 고통의 실체가 함축되어 드러나 있다. 창강은 나라가 망한 후 목적지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지니고 망명길에 올랐던 것 같다. 이는 “動而悔”한 卦를 지니고 장강을 날아넘었다는 표현으로부터 알 수 있다. 하지만 창강의 기대는 연이어 꺾어야 하는 좌절 속에서 무너지기만 하였다. 상전벽해가 되어도 난을 당하여 슬퍼하는 모습으로부터 그의 고통이 얼마나 컸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창강은 스스로 감내해야 할 고통이 극에 달하자 망명을 선택하지 않았던 손의경을 생각하면서 자탄하기도 한다. 손의경처럼 “靜而貞”한 卦를 지니고 낡은 관습을 지키면서 국내에 남아 벼슬길에 나아갔더라면 玉皇案까지 나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창강은 곁잡을 수 없는 현실적 고통에 대한 탄식을 바람 따라 부치면서 상실감을 극복하기 위한 최선을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늘 고민하였다.

子如三片花 세 분은 세 떨기 꽃송이런가  
 狂風飄萬里 광풍 만리에 훑날리누나.  
 昔之玉樹春 옛날의 재모 아름다운 봄 같더니  
 今也化泥滓 지금은 감탕 되었구나.  
 相送縣西門 현서문까지 배웅하노라니  
 淚滴綠江水 눈물 떨어져 푸른 강물 되누나.  
 舊恨已如彼 옛 한이 이러하거늘  
 新恨又如此 새 한 또 이러하여라.<sup>21)</sup>

홍순유·정경시·김국순을 남경에 배려면서 지은 시이다. 여기서 창강은 세 분을 “세 떨기 꽃송이”에 비유하여 그들의 아름다움을 부각하였다.

21) 앞의 책, 送洪舜俞鄭景施金國珣三君之南京, p.317. 1913년 작.

이들의 아름다움은 광풍만리에 흩날리면서 泥濘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로부터 그들이 망명지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슬픔을 겪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창강은 친구들을 배웅하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자신의 눈물을 푸른 강물에 비유했다. 일종의 과장법이다. 이 과장법을 통해 말하려는 것은 이역땅에서 겪는 창강의 외로운 심상과 고통스런 현실이다. 창강은 이와 같은 현실을 가슴 아프게 여기면서 끊임 없이 생겨나는 恨에 대하여 생각하였다. 舊恨을 극복하기 위하여 해외망명을 선택하였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舊恨이 극복되기는 커녕 新恨만 생겨난다고 하면서 안타까움을 표현하였다.

창강은 망명지에서 받는 恨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민족의 상실감을 극복하기 위하여 1912년 중국으로의 귀화를 선택하였다. 창강이 중국으로 귀화했다고 하여 그의 정체성이 동요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창강은 중국사회에 효과적으로 편입하여 이방문화에 동화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다. 그는 중국과 조선을 기자의 후손으로 생각하면서 중국의 지식인들과 동질감을 느꼈기에<sup>22)</sup> 고향으로의 귀환을 바라면서도 민족상실감을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중국국적을 취득하였다. 조선문화와 중국문화가 혼종된 환경에서 중국으로의 귀화를 통한 신분의 재생산을 획득하여 디아스포라 지식인의 사명을 다하였다. 중국으로 귀화한 후 창강은 한문화권내에서 공존과 통합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정체성 확보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면서 조선문화를 중국에 전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축하께서 나에게 보내준 편지에서 내가 남통국적에 가입한 것을 기쁘게

22) 孫厚翼, 滄江先生實紀序, 『김택영전집』6책, p.605. “滄江金于霖 當國朝衰季淹滯下僚 不能以文章鳴一代之盛 既又不容於城中叩杖 入中國宣壹鬱於詩文 中國之豪人通士 多同感於聲氣 願與之遊 於是滄江之名遍一世”

여기면서 인하여 상해 希社에 가입하여 중국학사의 무리에 설 수 있도록 권하였다. 그 뜻은 “마치 내가 다만 그대가 중국사람임을 알고 본래 중국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다”고 하는 것과 같았다. 진실로 그 흥도는 넓고 그 후의는 온온하니 또한 성하지 아니하겠는가? 하지만 나의 사사로운 사정은 다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청컨대 내가 진술을 해주겠다. “오직 우리 나라는 기자사손이래 세대로 중국의 변민자가 된지 3천년이다. 즉 그 백성이 곧 변민이다. 하지만 당나라 말 신라사람 최치원이 있었는데 12세 때 장사배를 따라 중국에 들어가 힘을 다하여 배워서 진사에 급제하였다. 高駢의 막하에 들어가 고병을 위하여 「討黃巢檄」을 지었는데 황소로 하여금 놀라서 침대로 떨어지게 하였다. 그가 지은 『계원필경집』 등은 『唐史·藝文志』에 수록되어 東人이 영광으로 여긴다. 원나라 때 고려사람 최해 이곡 등이 元科에 급제하였는데 東人이 수치로 여기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영광스러운 까닭은 당나라가 중국이기 때문이고 수치스러운 까닭은 원나라가 胡虜이기 때문이다. 마치 내가 을사년에 본국이 강유력한 자에게 먹힘을 당한 것을 보고서 하루아침에 포로로서의 수치가 몸에 미칠까 두려워 벼슬을 버리고 통주에 가서 수년간 살았는데 결국에는 완전히 먹히었으니 나의 한 몸은 더욱 슬픈데 무엇에 의지하겠는가? 그러나 청나라 백성이 되기 싫은 것은 청나라와 원나라가 오랑케이기 때문이다. 며칠 후 무한에 병사가 흥하여 중국은 다시 舊觀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나는 중화민국 백성이 되어 그 본분을 되찾고 즉하께서 권면한바 대로 최치원의 옛 발자취를 좇았으니 막대한 영광이 되노라.”<sup>23)</sup>

23) 김택영, 答張生書, 『김택영전집』1책, p.419~421. “足下辱書 以僕入南通籍爲喜 因勸入上海希社 使得列於中國學士之林 其意若曰 吾但知子之爲中國人 而不知其本非中國人也 誠廓乎其弘度 而溫溫乎其厚意也 不亦盛哉 然若僕之私則似有未盡相悉者 請有以陳之 惟僕之故邦 自箕子子孫以來 世爲中國藩臣者三千年 則其民卽其藩民也 然在唐之末 新羅人有崔致遠者 十二歲隨賈舶入中國 力學登進士 隨充高駢之幕 爲駢作討黃巢檄 令巢震動下床 名振天下 所著桂苑筆耕之屬 載在唐史藝文志 則東人以爲榮 元時高麗人崔瀞李穀等登元科 則東人以爲耻何也 所以榮者 唐也中國也 所以耻者 元也胡虜也 若僕當乙巳之歲 見本國之爲強

창강이 1913년 張謇에게 회답하여 보낸 편지이다. 이 편지에서 자신이 중국국적에 가입한 이유를 자세히 벗에게 설명하였다. 그는 중국국적을 신청하게 된 당위성을 두 가지 층위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그중 하나는 자신을 신라의 최치원 고려의 최해·이곡 등의 경우와 비교하였다. 최치원과 최해 등이 모두 중국에서 벼슬에 올랐지만 최치원의 경우 그것은 영광이요 최해와 이곡의 경우 그것은 수치라고 평가하였다. 창강이 이렇게 평가한 이유로 전자는 중국의 정통 국가인 당나라에서 과거에 급제했기 때문이고 후자는 오랑캐 나라인 원나라에서 과거에 급제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자신의 入籍이 나라가 멸망한 이후임을 강조하였다. 조선이 일제의 식민지가 되어 주권을 상실하자 창강은 어디에도 의지할 수 없는 기로에 놓여있었다. 자신은 청나라가 멸망하고 중화의 舊觀을 회복한 시점에서 민족상실감을 극복하기 위해 이 길을 선택하였기에 신라왕조가 건재할 때 중국에서 활동했던 최치원의 행적에 비해 자신의 행위가 합리하다고 인식하였다.

창강은 중국국적을 취득한 이후에도 자신을 늘 黃帝의 遺民으로 생각하면서 공화정의 新民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sup>24)</sup> 이는 아마도 중국사회의 동화에는 별 관심이 없고 유교적인 절의를 지키는 것으로 민족의 상실감을 극복하고자 하였던 내면의식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는 디아스포라적 존재였던 창강이 선택할 수 있었던 가장 최선의 방법이기도 하였다. 중국사회에 동화할 수도 없고 동화하려고도 하지 않

---

有力者所噬 恐一朝俘虜之辱及於身 棄官至通居數年 而噬者果竟下之腹 則僕之一身 尤復何所依 然而不忍爲清民者 清與元班固也 曾未幾日 武漢兵興 中國復還舊觀 故僕於是得爲中華民國之民 以還其本分 而如足下所引勸之事 卽僕之追躡致遠故迹 而爲莫大之榮者也” 1913년 작.

24) 김택영, 華裝寫眞自贊, 『김택영전집』2책, p.49. “不願爲共和之新民 但願爲黃帝之遺民” 1913년 작.

으면서 고안해낸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 바로 이 길이 아니었을까. 이 길이란 다름아닌 중국으로 귀화한 후 거주국사회에서 동화를 거부하고 정체성을 지키면서 자신의 본분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중국으로 귀화한 후 창강은 조선의 독립을 갈망하면서 서북간도에 모여 주야로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조선 독립군들의 재력을 돕기 위하여 중국에 청원도 하였다.<sup>25)</sup> 또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지식인들과 같은 연대감을 갖고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민족상실감으로 받은 상처를 치유하기도 하였다.

...(상략)...

卽今中州文運歇 지금 중국의 문운이 그쳤으니

繫誰奮臂扶厥輪 그 누가 앞장서서 그 수레를 부축하겠는가.

深深一語與相贈 깊고 깊은 한마디 말 서로 주고 받으니

江柳江梅無限春 강가엔 버들매화 봄경치가 끝없이 이어지는구나.<sup>26)</sup>

창강이 1921년 중국의 지인 陳保之에게 지어준 시이다. 시에서 창강은 당시 文運이 그친 중국의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였다. 1919년 중국에서 5.4 신문화운동이 흥기하여 정통 고문이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 배경하에서 창강은 누가 앞장서서 현실을 구제하겠느냐고 탄식한다. 그의 내면에는 陳保之와 같은 문인들이 나서서 중국의 문운을 일으킬 것

25) 앞의 책, 『擬陳情書』, p.432~433. “國內外之人心成城 雖夫人女子 皆奮憤思敵愾 強者之槍丸桎梏 視有餘也 忠義之士之避居于西北間島者 日夜習武事 一呼召則 數三千萬之精兵 可立見至 而宇內萬邦同秉彝之人 亦既皆已表示同情於獨立之事矣 … 嗚呼 敵邦自箕子逃居以來三千餘年 其與中國爲瓜爲葛 爲唇爲齒 曾何如其深且厚 而其或不然者 乃一時之時耳 然時也者天也 天無所爲 惟在乎英雄俊傑之造之如何耳 惟閣下造之焉 等屏營竢命 不宜” 1916년 작.

26) 김택영, 『贈陳保之』, 『김택영전집』1책, p.382. 1921년 작.

을 세삼스레 기대하였던 것이다. 창강이 이런 생각을 지닐 수 있었던 원인은 陳保之를 자신과 같은 기자의 후손으로 생각하면서 동질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인식이 있었기에 창강은 陳保之와 더불어 깊고 깊은 마음속의 말을 주고 받으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교류가운데서 창강은 울울한 심사를 달랠 수 있었다.

이상 창강이 망명지에서 느꼈던 고통의 실체와 이러한 상실감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창강은 민족의 상실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중국으로의 귀화를 선택하였다. 歸化생활이 시작된 후 창강은 중국의 제반 상황에 만족하면서 동화된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었다. 자신을 遺民으로 생각하면서 늘 독립된 조국의 앞날을 그렸고 지식인으로서 해야 할 책임과 사명을 다져갔다. 그에게 있어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사명감은 바로 망명지에서의 문화적 정체성을 찾는 것이었다.

### 3.3. 망명지에서의 현실대응과 문화적 정체성 찾기

남통에서의 창강의 활동에서 주목할만 한 것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망명지에서의 현실대응이다. 창강은 객관적 상관을 도입하여 망명지에서의 외로운 현실을 극복하였다. 현실적으로 이룩할 수 없는 꿈을 자연물에 의탁하여 초탈하고자 하였다. 둘째는 학술적인 저술과 문집편찬을 통한 민족사와 문화에 대한 통찰이다. 창강은 국토의 주권이 이민족에게 강점당했다 할지라도 문화적 전통을 상실하지 않으면 민족의 문화적 정서적 일체감을 유지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절의를 지켜야 할 대상으로서의 민족을 하나의 문화적 공동체로 상정하여 문화적인 정체성 찾기에 관심을 기울였다. 창강은 민족문화가 디아스포라의 지친 영혼을 달래줄 귀속처로 인식하였다.

高祖崇敦睦 조상이 화목함을 높이 여겼음을  
 吾鄉所共知 우리 고향 사람들도 모두 아는 바이네.  
 有君追古躅 옛 자취를 따르는 군자가 있었는데  
 爲我割深慈 나를 위하여 깊은 사랑 베푸셨네.  
 世亂生離別 세상이 어지러우니 살아서도 이별하여  
 天長挂夢思 오래도록 꿈에 걱정하고 그리워하네.  
 江潮將此恨 강의 조수는 장차 이 한을  
 直到碧瀾湄 곧추 벽란의 물가에 이르게 하리라.<sup>27)</sup>

1918년 창강이 士元에게 厚意를 담아 보낸 시이다. 士元은 창강의 팔촌동생이다. 창강은 큰 아들 光濂을 큰 형님에게 양자로 보낸 후 작은 아들 光속을 잃었다. 대를 이을 아들이 없어 士元에게 구하였더니 士元이 자신의 둘째 아들 煥杓를 허여하였다. 창강은 가문의 화목함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자신을 위하여 사랑을 베풀어준 팔촌동생 士元에게 늘 고마운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다. 어지러운 세상에서 오랫동안 생이별하여 꿈에서만 걱정하고 그리워하는 현실에 대하여 창강은 크게 한탄하였다. 친지를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恨스러움을 江潮에 의탁하여 깁그리 없애고자 하였다. 이러한 현실대응방법은 자연과 합일하여 난세를 극복하고자 하는 유학자들의 의지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창강은 국권회복을 위해 직접 뛰어들어 활동하지는 않았지만 저작을 통한 구국을 실천하면서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하여 문화적인 정체성을 확고히 수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계몽운동의 일환으로 망명생활을 하였던 모든 사람들에게 민족의 독립혼을 주입시키고자 망명지에서 역사서를

27) 앞의 책, 余長子光濂 既已繼伯兄 而去年又失少子光續 故謀嗣于三從弟士元 士元果以其第二子煥杓許之 余乃改其名曰光高 而字之曰景賚 盖庶幾其光顯我高祖之所大賚也 因寄士元以謝厚意, p.356. 1918

편찬하는 일에 힘을 기울였다. 그는 1909년에 일시 귀국하여 한국사와 관련한 자료를 구하여 돌아가는<sup>28)</sup> 등 한국사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았다. 이외에도 조선의 義士 가운데 하나의 절개라도 취할 만한 것이 있으면 모두 부지런히 썼고 특히 개성지방의 일에 힘을 더욱 쏟았다.<sup>29)</sup> 또한 『新高麗史』를 편찬할 때 서거정의 동국통감을 인용해 그 소략함을 고치고 釋志와 儒學·文苑·隱逸·遺民·隣國 등의 열전을 넣어 그 빠진 것을 보충하였다.<sup>30)</sup> 장건은 창강이 편찬한 『韓國歷代小史』에 序文을 지어주면서 창강의 행적을 높이 기리었다.

김택영의 힘씀은 근면하고 그의 뜻은 비장하구나. 장생이 말하기를 마음이 죽는 것 보다 더 슬픈 것이 없으며 몸이 죽는 것은 다음이다. 아! 이것은 사람을 두고 말한 것이다. 나라를 두고 말해보자면 장건은 홀로 역사가 망한 것 보다 더 슬픈 것이 없으며 나라가 망한 것은 다음이라고 여긴다.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곧 이 한 姓이 죽는 것에 관계될 뿐이지만 역사가 망한다는 것은 그저 죽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불행히도 그 나라를 끊어버리는 것이다. 장차 한 나라의 훗날 수치를 아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사라질 것이다. 김택영은 一國의 3200년의 역사를 서술하여 觀怨法戒해야 할 바를 대략 갖추었다. 이로써 사람들에게 觀怨而法戒를 제공하였다.<sup>31)</sup>

28) 황현, 金澤榮還國, 『매천야록』 권6. “前參書金澤榮 自通州東還 澤榮隨張謇往通州 謇薦補翰墨館纂輯之役 沾丐殘奉 生計蕭然 尹澤榮李載崑等 聞而應之 合資送船費 澤榮素有刪述國朝史之意 而本國則有忌諱 中國又無考據 故欲因請邀一還故國 喪聚史乘而去 遂東還”

29) 李箕紹 遺事, 『김택영전집』 6책, p.696. “凡於本邦諸義士之有一節可取者 皆汲汲書之 尤於開州於之事致力多 累校金堯泉集廣頌于世”

30) 김택영, 新高麗史序, “引徐氏東國通鑑之文 以救其疎 引公羊穀梁春秋之義 以通其諱 加入釋志儒學文苑隱逸遺民隣國等傳 以苴其漏 然後取歐陽氏新唐書之古例 以名之” 1923년 작.

31) 張謇, 『韓國歷代小史序』, 『김택영전집』 3책, p.7. “金君之用力勤而其誌可悲也 莊

『韓國歷代小史』는 창강이 남통에서 편집출판한 역사서이다. 창강의 부탁으로 서문을 쓰게 된 장건은 창강의 근면한 태도와 비장한 뜻에 공감하였다. 창강은 예로부터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은 없다고 하면서 망한 가운데서도 다 망하지 않은 것이 있으니 그것은 문헌이라고 하였다.<sup>32)</sup> 망국의 상황에서 문헌을 보존하고 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창강은 이 책을 편집하였다. 장건은 나라가 망한 것 보다 역사가 망한 것이 더 슬프다고 피력하였다. 장건이 역사의 중요성을 이와 같이 피력한 이유는 國亡이 一姓의 죽는 것에 그친다면 史亡은 그 나라와 관련된 모든 것이 단절된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바로 인식의 기반이 있었기에 장건은 문화적인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 3200년의 역사를 서술한 창강의 이 역사서를 높이 평가할 수 있었다.

망명지에서 문화적인 정체성을 찾기 위하여 창강이 기울인 또 하나의 노력은 바로 『麗韓九家文鈔』를 비롯한 문집의 편찬에 관심이다. 창강은 망명을 떠나기 전에 『麗韓九家文鈔』의 초고를 작성하였다. 창강에 의하여 麗韓九家의 대상으로 선정된 문인들은 고려의 金富軾·李齊賢과 조선의 張維·李植·金昌協·朴趾源·洪奭周·金邁淳·李建昌이다. 선정된 글의 내용과 사상이 다양하여 제한된 기준이 없는 것 처럼 느껴지지만 고문 문체에 강한 정통 문장가들의 문장을 선정하였음은 분명하다. 정통성이란 단절이 아닌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으로 다른 무엇보다도 그 계승 발전의 가능성이 큰 만큼 기실은 나라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민족적 정

---

生有言 哀莫大于心死 而身死次之 嗟乎 此以人而言也 言乎國 則寔獨以爲哀莫大于史亡 而國亡次之 國亡即死此一姓之系耳 史亡不惟死 不幸而絕之國 將並死 此一國後來庶乎有恥之人 金君敍一國三千二百余年事 可觀可怨可法可戒者略備矣 謂以供人觀怨而法戒” 1922년 작.

32) 김택영, 『明美堂集序』, 『김택영전집』1책, p.525. “自古人未嘗不亡 而于亡之中 有不盡亡者 其文獻也” 1917년 작.

체성을 수립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여겨진다. 창강은 남통으로 떠나면서 九家文을 王性淳에게 주어 간직하도록 한 후 매년 편지에서 九家文을 말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한다. 왕성순은 창강의 제자로서 스승의 고문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는 창강이 넘겨준 九家文에 창강의 글을 보태어 『麗韓十家文鈔』를 만들었다.<sup>33)</sup> 『麗韓十家文鈔』는 중국지식인의 협조와 창강의 노력으로 인하여 남통에서 간행될 수 있었다. 양계초는 1914년 이 책에 서문을 써주면서 이 책의 편집에 힘쓴 창강과 왕성순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였다.<sup>34)</sup>

결론적으로 창강은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麗韓九家文鈔』를 편집하였다고 말할 수 있겠다. 창강이 가려 뽑은 『麗韓九家文鈔』는 후에 왕성순에 의하여 『麗韓十家文鈔』라는 이름으로 간행될 수 있었지만 이 책을 출간하는 과정에 창강의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창강은 민족정신을 발양하고 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記文을 지어 동료들의 사상을 고취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대목은 조국에 남아있는 金相宇의 부탁으로 지은 「丹山精舍記」<sup>35)</sup>를 비롯한 산문에서 확인하

33) 王性淳, 『麗漢十家文鈔序』, 『麗韓十家文鈔』, 민족문화추진회, 1977년, p.2. “光武末 浮海之淮南 以九家者 異性淳藏之 其後每抵書 未嘗不以九家爲言 性淳竊自以爲 先生之文 已盛傳於天下 則麗韓之文之選 先生不居其一 不可 況先生與李建昌氏相好 而同唱古文 一時有韓柳之目 彼此不可少一 是非性淳之責乎 遂就九家 重加增刪 益以先生以爲麗韓十家文鈔”

34) 梁啓超, 『麗漢十家文鈔序』, 『麗韓十家文鈔』, 민족문화추진회, 1977년, p.1. “韓之遺民 金澤榮 最錄其國先達之文雅正者 命曰 麗韓九家文 以貽其友王性淳 王氏復益以金氏所作 爲十家 家寫一篇 而介張季直先生 以請序於余 … 金王二君之志事 於是乎可敬 而十家文之鈔輯 於是乎非無用矣 甲寅除夕中華梁啓超書” 1914년 작.

35) 金택영, 『丹山精舍記』, 『김택영전집』2책, p.1. “吾少友金君相宇屬記其讀書所所謂丹山精舍者曰 丹山者蔚山郡西四十里瀕海處 有檢丹里故名之也 自我曾大父肇家於此 設塾以教子弟 至叔父儉廬處士 增大之而講學其中 嚶嚶洛閩 遠近學者坌集矣 叔父既沒之後 世事寢變 國以丘墟 塾遂因緣見廢 前三年丙辰 叔父諸孤及相宇等十數從昆弟 相與合謀并力 就舊址傍 復建數楹 揭以今名而同居業焉 故謹

게 드러난다. 단산은 울산군 서쪽 사십리 바닷가의 검단리에 위치해 있었다. 김상우의 증대부가 여기에서 살기 시작해서부터 사숙을 설치하고 자제들을 가르쳐 숙부 검려처사에 이르기까지 확대하고 그곳에서 강학하였는데 洛關을 본받으니 원근의 배우는 자들이 모여들었다고 한다. 洛關은 濂洛關關의 학문을 지칭한 것으로 송대의 성리학을 뜻한다. 김상우의 숙부가 돌아간 후에 세상일이 변하여 나라는 폐허가 되었고 사숙도 따라서 폐하게 되었다. 이에 1916년 김상우와 숙부의 여러 자식들이 힘을 모아 옛 터 곁으로 나아가 다시 두어칸을 지어 丹山精舍라고 명명하였다.

일본은 조선을 합병한 후 강압정치를 하였고 문화상으로는 동화정책을 펴 조선 민족의 문화를 없애려고 하였다. 실제로 김상우의 증대부가 설치했던 사숙도 일제에 의하여 폐허로 변하였던 것이다. 멀리 중국에 있었던 창강은 이 소식을 듣고 탄식하면서 “대저 천하에 의지할 만한 것이 있고 의지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의지할 만한 것은 道이고 의지하지 못할 것은 力이다(夫天下 有可恃者 有不可恃者 可恃者道 而不可恃者力也)”라고 하였다. 道에 의지하여 민족문화가 보존된다면 국가의 독립을 쟁취할 수 있음을 암묵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文武의 道와 秦 나라의 정치를 비교한데서 잘 드러난다. 창강은 김상우의 자제들이 고국의 환난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산정사를 새롭게 세워 이룩한 공을 칭송하였다. “대저 이미 책 읽는 소리가 끊어졌다가 다시 산과 바다에 울려 날 가는

---

誦此 以爲子濡筆之資 余聞之 爲之歎息 夫天下 有可恃者 有不可恃者 可恃者道 而不可恃者力也 昔者周之王業 至厲王而燬 然文武之道 未盡墜地 故宣王得以中興 秦并諸侯 郡縣天下 然徒聘其殘暴之力 故纔二世而天下亡之 今金氏之子弟 乃當故國丸劉桔繫 稅腴役驅 萬死無一生之際 爲此經營 使夫已絕之誦聲 復振於海色山光之中 田夫漁人 相與停鋤棹而聽之 是豈力之裕足而然哉 亦惟曰儉廬處士高明正大之道 宜得賢子姪之修復弘規而已 復何他言哉 因以告于故邦義民之思復箕子舊物者曰 今日之丹山精舍 其子之鏡也歟” 1919년 작.

농부와 고기 잡는 어부가 서로 호미와 노를 놓고 듣는다(使夫已絕之誦聲 復振於海色山光之中 田夫漁人 相與停鋤棹而聽之)”는 대목에서 ‘꿇어진 책 읽는 소리’는 민족혼의 침체를 상징하고 ‘책 읽는 소리가 산과 바다에 울린다’는 것은 민족혼의 부활을 상징한다. 이와 같이 창강은 단산정사를 모델로 민족문화를 보존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고 민족 문화를 보존해야 할 필요성을 망명생활을 하는 여러 동료들에게 간접적으로 호소하였다. 자신을 비롯한 여러 지식인들이 망명지에서 민족정신을 계승하면서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자 노력한다면 민족의 重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였던 것이다.

이상 창강의 망명지에서의 현실대응양상과 문화적인 정체성을 찾고자 노력한 흔적들을 살펴보았다. 디아스포라 지식인이었던 창강은 망명지에서 학술적인 저술과 문집편찬을 통하여 정체성을 확보하였다. 문화적인 정체성을 찾고자 부단히 기울인 창강의 노력에 의하여 조선문화 전통의 우수성이 중국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출판의 자유가 제한된 조선에서는 이룩할 수 없었던 소망을 창강은 망명지에서 중국인들의 도움으로 자유롭게 실현할 수 있었다.

디아스포라 문학으로 창강의 시문을 정의했을 때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창강 문학의 또 다른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우국적인 풍격의 시를 많이 창작하였다는 기존의 견해에서 벗어나 한말 지식인이 디아스포라를 경험하면서 이루었던 업적을 새롭게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창강의 업적은 바로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선의 문학유산을 중국에 전파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던 점, 신분의 재생산을 획득함으로써 중국 지식인들과 보다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었던 점, 그리고 창강이 지은 문학이 당대 현실과 소통함으로써 일제 식민지 치하의 부조리한 현실을 개선하는 힘으로 작용하였던 점을 꼽을 수 있다.

#### 4. 나오는 말 - 디아스포라 문학의 진정한 정체성을 위하여

지금까지 창강의 문학에 나타난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제 살펴본 결과를 요약하고 디아스포라 문학의 진정한 정체성을 위하여 새롭게 제안함으로써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창강은 일본의 침략에 의해 삶의 터전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중국 남통으로 망명가서 디아스포라한 삶을 경험하였다. 남통에 살면서 창강은 실질적으로 조국의 역사와 문화를 부여잡기 위해 노력했다. 어디에도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流民생활의 외로움을 느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당시 해외로 망명갔던 여타의 문인들과 마찬가지로 歸鄉의지를 고취하였다. 창강은 망명지에서 생활하면서 끊임없이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 고통과 상실감만 느꼈다. 이러한 상실감은 민족의 고난으로부터 기인하였던 것이다. 민족의 상실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창강은 중국으로의 歸化를 신청하였다. 이러한 행보는 박은식이나 신채호의 활발한 구국언론 활동과 대비되는 양상이다. 창강은 자신의 편안함을 추구하고자 중국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중국과 조선을 기자의 후손으로 인식하면서 민족을 위하여 새로운 출로를 모색하고자 이 길을 선택하였다. 중국국적에 가입한 후에도 중국 지식인들과 동질감을 지니고 더욱 폭넓게 교류하였다. 중국 지식인의 도움으로 창강은 망명지에서 『韓史纂』·『韓國歷代小史』를 비롯한 역사서와 『麗韓十家文鈔』·『明美堂集』등 문집들을 편찬하여 문화적인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었다. 이들의 교류는 초국적 네트워크의 형성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디아스포라는 그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존재이기도 하였다.

디아스포라 문학의 진정한 정체성을 위하여 연구자들은 어떤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인가? 창강의 사례를 중심으로 앞으로 디아스포라 연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디아스포라 문학을 한국문학으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편견적인 시각을 버려야 할 것이다. 디아스포라란 제명 하에 창강의 문학을 한국문학사에 포괄하여 의미를 부여한다면 창강의 디아스포라 문학이 지닌 양 문화적 특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기 때문이다. 민족주의적인 입장과 탈근대적인 맥락에서 창강의 문학이 지닌 이중성과 개별성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디아스포라 문학지도를 그려 디아스포라 문학연구의 새로운 장을 개척해야 할 것이다. 디아스포라는 가치의 중심에서 절망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조건에 의하여 또 다른 공동성을 가능하게 하였다. 조선에 있을 때에는 의식하지 못한 또 다른 공동성을 구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창강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지식인들의 활동행적을 문학지도로 재구한다면 한민족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망명지식인의 경험을 디아스포라의 시각에서 이해하는 것은 무엇보다 이들의 다양한 경험을 개별적인 사례로 보지 않고 일관된 분석틀을 가지고 비교분석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창강의 사례만을 중심으로 그의 작품에 나타난 디아스포라 의식을 살펴보았기에 이주와 정착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인들의 변별양상을 서로 연관시켜 바라보지 못한 한계를 지니게 되었다.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만주로 이주한 문인들의 디아스포라와 남방으로 망명한 지식인들의 디아스포라를 비교하여 창강의 망명문학을 새롭게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원전 -

김택영, 『韶護堂集』, 한국문집총간 347,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2005년.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金澤榮全集』(1~6), 아세아문화사, 1978년.

湖南學研究所 편, 『梅泉全集』, 한국인문과학원, 1988년.

- 논·저서 -

곽미선, 「滄江 金澤榮과 중국 지식인들의 교류」, 『비교한국학』제17권, 국제비교한국학회, 2009년. p.165-201.

김관용, 「디아스포라 작가 김학철의 문화신분 연구」, 『한중인문학연구』제27집, 한중인문학회, 2009년, p.297-330.

김승룡, 「金澤榮의 松都 복원 작업의 의미」, 『고전문학연구』제29집, 한국고전문학연구회, 2006년. p.105-138.

김종희, 『디아스포라를 넘어서: 경계에 선 문학의 운명』, 민음사, 2007년. p.1-405.

吳允熙, 『창강 김택영 연구』, 국학자료원, 1996년. p.1-355.

王先霈·王又平 主編, 『文學理論批評術語匯釋』, 高等教育出版社, 2006년, p.1-918.

王淑誼, 「滄江 金澤榮의 산문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년. p.1-144.

윤인진, 『코리아 디아스포라』,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4년. p.1-352.

李義康, 「金澤榮의 중국 망명 원인에 대하여」, 『東方漢文學』제22집, 東方漢文學會, 2002년. p.71-95.

정재철, 「창강시에 있어서의 현실감과 우국시의 성격」, 『한문학논집』, 단국한문학회, 1988년. p.151-169.

黃載文, 「金澤榮 詩에 나타난 遺民意識」, 『韓國漢詩研究』제13집, 한국한시학회, 2005년. p.119-154.

## ABSTRACT

## A study on the Diaspora and Identity in Kim Taek-Young's literature

Guo, Mei-Shan

Chang-Gang Kim, Taek-Young(1850~1927), who was a representative writer in latter era of the Chosun Dynasty, is now observed as an important person in the study of modern ideology in Korea. This thesis was planned to consider the diaspora and identity which has been revealed in his literature. To focus on his consciousness of diaspora, this thesis separately focused on the expression of displaced sentiment, the substance of anguish, the conquest of the national loss, the countermove to reality as an exile, and the search of cultural identity.

Chang-Gang felt the loneliness as an exile in Nam-Tong, but continuously tried to carry a strong emphasis on the history and culture of his mother country. To overcome the circumstances, he inspired the will of returning to homeland, but felt the pain and the loss because of realistic restriction. He applied for a naturalization to escape from the feeling of the national loss, but it was not for his own comfort. He recognized China and Chosun as the same descendants of Gi-Ja, so he choose this way to find the new way-out. He focused on efforts to compile historical books and collections of works of Chosun, to ensure the cultural identity while living as an exile. He could publish books extensively by the help of chinese intellectuals, and this accomplishment became a very important key to inform the culture of Chosun Dynasty in China.

The experienc of diaspora has brought a great deal of pain and loss to Chang-Gang. But he could establish his identity as an intellectual in the latter era of the Chosun Dynasty by that experience, and also could do profitable works for his mother country by focusing on tasks to do as an exile.

**Key Words** Kim, Taek-Young, Literature, Exile, Diaspora, The national loss, Identity.

논문투고일 : 2009. 10. 18
심사완료일 : 2009. 11. 22
게재확정일 : 2009. 12. 04